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강계시의 공장들을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강계시의 공장들을 현지도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먼저 강계트락도르종합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의 여러 직장들과 새로 만든 기계제품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작업장마다에 줄지어 늘어선 CNC화된 각종 최신식기계들과 질 좋은 가공품들을 보시고 모든 생산공정들을 CNC화하고 새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증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과감히 벌여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시키였을뿐 아니라 최첨단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한것은 크게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

기술발전으로 대중을 힘있게 추동한 결파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쥔 경험에 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서자는것이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이라고 하시면서 경제건설전반에서 대고조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최첨단과정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대화의 본보기 공장인 강계트락도르종합공장은 생산은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경험을 모든 단위들에서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강계트락도르종합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가까운 기간에 공

장이 점령해야 할 투쟁목표를 다시금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강계트락도르종합공장의 로동계급이 기계제작공업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강계고려약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추출농축실, 약초조직배양실, 접종실, 물약포장실, 약품진렬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을 제약공장답게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리고 지방에 풍부한 각종 약초들을 리용하여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초림계추출공정, 진공법에 의한 엑스생산공정 등을 새로 꾸려놓은것을 비롯하여 고려약의 엑스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에쓰고있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특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약초성분추출의 최량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전통적인 방법으로서는 뽑아낼수 없는 약성분들까지 모조리 추출하여 엑스화할수 있게 하였을뿐 아니라 약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첨단기술공정을 새로 꾸려놓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약품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선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초소를 지켜선 보건의사라는 높은 자각과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약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4차 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토의되었다.

총리 겸 재정상 박수길대위원이 하였다. 첫째의정과 둘째의정에 대하여 한 광복대의원, 안정수대의원, 로베권대의원, 럽인윤대의원, 조영철대의원, 최종진대의원, 고선욱대의원, 최영덕대의원, 허남순대의원, 강남익대의원이 토론했다. 김정선대의원, 문영선대의원, 김철호대의원, 장병관대의원, 재강한대의원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강성변영의 싹을 확실히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공화국정권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소집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인한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에 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었으며 올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와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내각의 과업이 명백히 제기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국가에 산이 옮겨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올해에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인민생활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작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업보고와 주제99(2010)년 국가에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제100(2011)년 국가에산에 대하여》가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전변호대의원의 직무변동과 관련하여 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박도춘대의원을 보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장으로 리명수대의원이 임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병규대의원이 보선되었다. 리태남대의원을 신병관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에서 해임하였다. 최태복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에 관한 나이제리아전국토론회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에 관한 나이제리아전국토론회가 3월 23일 나사라와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업적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토론회장에 전시되어있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시대를 개척

하시였으며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되 조선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서 격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부자종합대학 정치학부 교수 아부물라흐만 하부 하미사, 국제기자대학 교수 아브둘라히 무함마드 암마가 토론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 출판



태양절에 즈음하여 성대하게 진행되는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앞두고 선전화들이 출판되었다. 선전화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김일성화, 김정일화와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4월의 하늘가에 펼쳐진 축포의 불꽃바다를 형상한 선전화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축전도시 평양에 오는 여러 나라 예술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의 뜻을 담고있다. 각이한 민족의상을 한 녀성에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마크를 높이 들고있는 모습이 부각된 선전화는 축전이 내세우고있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열정에 넘쳐 높은 예술적기량을 과시하는 지휘자와 가수, 무용수를 그리고 재치있는 기교동작을 수행하는 교예배우들의 모습을 형상한 선전화들도 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국 제 사 회 계 가 열 렬 히 칭 송

강성대국에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강대성의 근원천인 선군정치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폴로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으로, 필승불패의 보검으로 되고있는 선군정치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이 일제의 강점하에 있던 시기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오직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만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 총대중시사상, 선군사상과 그에 기초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기네라지오 방송은 김일성주석께서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으로써 조선혁명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시련속에서도 승승장구해나갈수 있었으며 진보적인류는 민족해방과 반제투쟁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인류의 사상정신생활영역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보

도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그를 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군사문제를 우선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무력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시어 군사정치간부들을 양성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공화국창건에 앞서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당백》구

호를 제시하시어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만드셨다. 메히코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불레전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자립적인 강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병기공업창설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전후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국방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사회주의조선은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필요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능히 자체로 충족

본사기자

위대한 령장을 모신 민족의 긍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돛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넘쳐 있으며 주체의 선군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주체82(1993)년 4월 9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에 따라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신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새로운 전환적moment를 펼친 역사적사건이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령도의 크거나 인구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 있다.

비록 나라의 크지 않지만 위대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령장을 모시지 못한 탓에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망국노의 운명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이었는가.

나라를 지킬 총대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 왜적에게 국토와 국권을 강탈당하고 《시일야방성대곡》을 터뜨리며 피눈물을 뿌려야 했던 것이 어제날 우리 민족의 비참한 처지였다.

군사중시, 총대중시 사상을 내놓으시고 불패의 군력으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백두산총대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떨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천년만년세월이 흐른대도 우리 겨레는 잊지 못한다.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업적을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애국주의련합세력의 날로 더욱 발달해가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 오시었다.

강한 군력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긍지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임없이 이어가신 선군의 길위에 군력강화의 새 령사가 빛나게 새겨졌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시기 민족이 자기의 존엄을 지키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령사의 갈림길에서 장군님께서 내리신 결단, 대용단은 군력강화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봉쇄와 압력에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식량공급소들이 문을 닫

고 인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기도 국방문제와 관련한 문건에 수표를 하실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회고의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폭풍속에서 조선민족이 어떻게 불사신마냥 추겨쳐오르는가를 령사와 세계앞에 엄숙히 보여주 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인민군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

다, 지금은 그 어떤 피값을 치르더라도 조국을 지키고야야 한다, 나라를 지켜내기만 하면 생활을 푸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며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 드시고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그 길에서 인민군대가 자위의 혁명적력까지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되고 온 나라는 그 어떤 제국주의의 침공도 격파 분쇄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었다.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65돛을 경축하여 평양의 김일성광장

을 부무당당히 누빈 최정에 열병 대대의 도도한 발구름소리, 자위적역력의 상징인 현대적인 첨단무장장비들은 온 겨레는 물론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령도에 의하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책동, 고립봉쇄의 포위환이 산산이 부서지고 공화국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무기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강위력한 국방공업을 가진 강국으로 추겨쳐올랐다.

선군의 기치밑에 자기의 존엄을 떨쳐온 공화국이 오늘 위대한

령장을 따라 경제강국의 높은 봉우리로 치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최첨발전소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로 새해의 첫걸음을 떼신 그이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고동치고 있다.

내가 이번엔 최첨발전소건설장을 찾은 것은 전선시찰을 한 것이나 같습니다!

령도자가 앞장서야 온 나라가 일떠서고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의 뒤를 따라 달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그이께서는 최첨전초소의 병사들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었고 천만민민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주 시었다.

장군님의 열렬한 애국헌신이 전민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세계를 놀래우는 최첨전초소를 낳고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하자!》는 애국의 호소가 온 나라에 메아리쳐 방방곡곡에 후손만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비날론이 다시 폭포처럼 쏟아지던 잊을 수 없는 2월의 그 날에도 하얀 비날론을 손에 쥐시고 보고 또 보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비날론옷감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도 만족해하시며 온 세상이 환하도록 밝게 웃으시던 장군님이시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피로도 풀지않고 이어가신 장군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눈물을 뜨겁게 적시었는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백암, 삼지연과 대흥단군, 해산시와 어랑천발전소

건설장 그리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신 그날로부터 불과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장군님께서서는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그이의 현지지도소식을 전하면서 《중국다녀온 김정일국방위원장 6일세 15곳 현지지도》, 《최북단 산업시설 련이어 시찰》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하였다.

보통 공병으로는 10여년이 걸려야 한다는 최첨발전소가 불과 몇달사이엔 하늘높이 언제를 치솟아올리며 완공의 시일을 앞당기는 변을 터칠 때 주체철, 주체철을 가라앉혀 일어나고 공화국의 CNC기술이 최첨단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이 지경을 넘어 전세계로 퍼져갔다.

하자고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실천하는 것이 위대한 령도자의 구상과 령도를 따르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도저히 불가능하던 대계도간선의 완공은 이에 대한 뚜렷한 확증이었다.

남조선의 《자유민주》는 대계도간선시찰에 대해 이것은 자주성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가장 풍요로운 생활까지 넘두에 둔 자주주의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간척지에 출렁이게 될 장대한 황금물결은 북의 강령적 자주주의 상징》이며 또한 남녘에 주는 영향력도 매우 크다고 전했다.

민족수호와 변명의 령사는 겨레의 가슴속에 절세의 위인을 모실 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굳건히 지켜지고 빛나는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어제도 오늘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승리만을 떨칠 것이며 뜻깊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거이여 열어제끼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최석현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해 간다.

— 조선 혁명 박물관에서 —

천 아버이사랑으로 이어지는 전선길

비가 오기 전에

계절은 봄이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하던 주체 94(2005)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한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었다.

아침일찍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신 그들이 비움게 된 지휘관들은 뜨거운 걱정 에 휩싸여있었다.

축복받은 후방일군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최전선의 한 구분대를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위인의 유모아

주체86(1997)년 10월 어느 날이었다.

머 사진을 찍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제서야 비가 오기 전에 사랑하는 병사들과 기념 사진을 찍으시려고 그토록 일찍이 길을 떠나신 사연을 알게 된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끝내 눈시울을 적시고야 말았다.

크나큰 고무

주체 94(2005)년 11월 어느날 한 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어 중대에술소품공연을 보여주 시었다.

들을수 없게 된 목동의 피리소리

이 마치 궁전같다고,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만족해 하시었다.

기에 대견해하시며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축복을 안겨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이 나라 천만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아버이사 랑이다.

그때로 말하면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책동과 거둬지는 자연재해로 하여 경공업공장들이 거의나 멎어있던 시기였다.

평범한 병사에게 주신 장군님의 이 말씀은

군인들의 또다시 터치는 환호에 답례하시며 밖으로 향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이 목동의 피리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안에서 기르게 되어 목동의 피리소리를 들을수 없게 되었 습니다라고 하시며 유쾌하게 웃으시었다.

다하고 하시면서 중대에술소 품공연을 전후적기백과 랑 만이 넘치게 잘 하겠다고, 앞으로 중대에술소소화활동을 더 잘하라고 말씀하시었다.

군인들이 또다시 터치는 환호에 답례하시며 밖으로 향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본사기자

평범한 병사에게 주신 장군님의 이 말씀은 군인들에게 혁명적력만을 안겨주는 크나큰 고무로 되었고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경공업발전의 방도를 밝혀주시어

올해에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것이 공화국에서 내세운 목표이다.

이러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조국이 시련을 겪다보니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그 모든것을 이겨내면서 당에 충실하고있다고, 이런 훌륭한 인민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명금룡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령도에 의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의 힘찬 동음이 울리게 되었으며 격동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기들의 로동생활을 목가적인 선물에 담아 피리를 불었다.

우리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언제나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는 장군님이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경공업문제, 인민생활문제를 하 나씩하 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금은 우리가 고생 을 하고있지만 반드시 웃으며 잘살 날이 올 것이며 보 랑과 긍지를 가지고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게 될 것 이 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최석현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령도에 의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의 힘찬 동음이 울리게 되었으며 격동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자연풀판을 찾아 힘들게 짐승을 몰고다니며 방목하던 방목공들이 이제는 현대적인 목장에서 소들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사육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언제나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는 장군님이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경공업문제, 인민생활문제를 하 나씩하 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금은 우리가 고생 을 하고있지만 반드시 웃으며 잘살 날이 올 것이며 보 랑과 긍지를 가지고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게 될 것 이 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명금룡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령도에 의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의 힘찬 동음이 울리게 되었으며 격동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자신들이 강성대국의 아침을 마중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박전경진공장에서 질 좋은 담요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위험한 핵 선 제 타격 모의

얼마전 미국의 하와이에서는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확장적정적위협위원회》 본회의 제28차 《안보정책구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그 누구의 《핵위협》과 《도발》에 정치,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확장적정적위협위원회》를 통해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가뜩이나 긴장한 조진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위협천만만중공화가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확장적정적위협위원회》이라는것은 미국이 지난 시기 남조선에 제공하였던 이른바 《핵우산》을 더욱 확장하여 공화국을 핵 및 기타 군사장비들로 위협하며 선제타격하기 위한것이다. 말은 그럴듯 하게 《억제수단》이지만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을 핵위협, 핵선제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다.

최근년간 미국과 남조선은 공화국

의 있지도 않은 《핵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핵확장적정적위협위원회》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왔다. 그러나 이번 군사모의에서는 올해부터 그것을 직접적인 실천행동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습을 한다는것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문제의 엄중성과 위협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회의들에서 호전세력들은 앞으로 남조선미국 《국방, 외교관련정책결정자들이 모여 북의 핵과 관련해 발생할지는 2~3개 세너리움을 상정해 정치, 군사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토의하게 될것》이라며 이러한 훈련을 앞으로 《2~3차례 실시한 뒤 구체적 인 운용수단을 적용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들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결국은 공화국의 핵시설과 자위적인 전성역제력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하며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

계에 남조선을 끌어들이겠다는 소리 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그것이 조진반도에도 무엇을 초래하겠는가는 묻지 않아도 변하다.

호전세력들이 말할마다 위우는 《핵위협》이니, 《도발》이니 하는 것은 저들의 핵전쟁책동을 가리우고 합리화하기 위한 한갖 구실에 불과하다.

이미 여러차례 천명원바와 같이 공화국의 핵은 철두철미 자위를 위한 억제력이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수 없다.

오히려 자위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공화국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갖은 핵공격을 일삼고 위협하고있는 장본인은 미국이다.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의 전후과정이 보여주는것처럼 전쟁도발의 기회만을 노리면서 엄청난 군사적도발을 거는것도 미국이고 남조선의 호전세력이다. 얼마전에도 남조

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자는 《북의 도발원점뿐 아니라 지원세력까지 대응타격할것》이라며 전쟁광기를 뽐어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떠들며 위협천만만 《핵확장적정적위협위원회》까지 벌려려 하는것은 내외 호전세력이 이 땅에 끝내 핵전쟁의 불집을 터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진반도의 천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해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성의외인 대화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면하면서 한쪽으로는 북침핵전쟁공공이만 하고있는 호전세력의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현실을 바로 보고 자멸을 재촉할 어리석은 전쟁책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

부자에게는 《천당》, 서민에게는 《지옥》

올해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의 《실용정권》은 《공정한사회수립》을 표방하였다.

현 집권자도 그 무슨 《3.1 기념사》 라는데서 《천서민중도실용주의와 공정한 사회구현》을 떠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인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는 한갖 기만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는 남조선의 현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희망근로자사업》이니, 《보급자립주책》이니, 《등록금후불제》니 하는것들을 광고하면서 그 무엇을 할것처럼 소동을 피웠지만 인민들의 생활저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을 떠들면서 기업주들에게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수 있도록 한 《비정규직법개정》, 있는자들만 살찌우는 《공기업민영화》와 《부자감세》 등으로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로하여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 800여만세대의 주민들이 제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없어 절망속에 아우성치고있다.

한편 1000만원 넘는 등록금때문에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있으며 7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926만명이 《신용불량자》로 골리떨어졌다.

남조선에서 날로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의 길, 범죄의 길로 내몰고있다.

인민들이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반면에 극소수의 권력자, 부유층은 더더욱 부패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신문이 폭로한데 의하면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70%가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현 집권자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4억원이나 늘어났을 뿐 아니라 부유층이 89%가 재산이 늘어났으며 1인당 평균 증가액은 1억 4300만원에 달한다.

심지어 정보원 원장의 처는 2억원이상의 주식을 가지고있는 사실을 숨겨오다가

이번에 드러났다.

고위공직자의 대부분이 여러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부동산투기와 주식투자를 통해 재산불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소수의 부유층이 금융 및 부동산자산의 75%를 독차지하고 300만US\$이상이나 되는 여러채의 초호화주택을 소유하고있다.

재산불기에 환장한 공직자들의 부정축재행위는 늘어나는 빚더미와 물가폭등으로 생활상 고통을 겪는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있다.

황당한 거짓말로 민심을 우롱하는 부패 《정권》에 남조선인민들은 침을 뱉고 돌아서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 《〈천서민중도실용주의〉는 반서민정책, 〈강부자정책〉이다.》, 《생활물가 고평행진으로 서민들 허리된다.》, 《민중주의를 거역하는 천서민중도실용주의》(MB정권)에 맞서 목숨걸고 싸우자.》,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저주와 규탄, 항거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김철호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지난 《대통령선거》때 《세종시원안추진》, 《반값등록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건설》 등 요란한 《공약》들을 내놓았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 집권자의 임기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남조선에서는 그 많은 《공약》들이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각계의 불만과 분노가 날로 거세지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동남권신공항건설》 백지화도 그중의 하나이다.

《동남권신공항건설》은 영남지역에 비행장을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약속》이다.

수년전 이 사랑발림의 《공약》으로 이 지역의 민심을 현혹하여 《대통령》이 된 현 집권자는 막상 권력을 쥐게 되자 약속을 언제 했던가싶게 비행장건설 사업에는 전혀 눈을 돌리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를 내세워 《신공항건설》 위치와 그 경제타당성을 조사평가하는 위원회를 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위원회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어 조사사업을 위한 현지답사조차 하지 않았다.

영남지역주민들은 물론 정치권에 서조차 남조선당국자의 무관심한 태도를 규탄하며 현 당국이 하루빨리 《신공항건설》을

진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바빠맞은 현 남조선당국자는 경제타당성이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신공항건설리포트》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실삼아 지난 4월 1일 《동남권신공항》 공약 파기를 선언하였다.

결국 《동남권신공항건설》이라는것이 선거표를 끊어모으기 위해 고안해낸 빈껍데기 공약이라는것이 드러나버렸다.

하기에 집권자의 거짓공약에 속히온 영남지역인민들은 《공약파기는 《대통령》 때 표를 얻기 위해

진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바빠맞은 현 남조선당국자는 경제타당성이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신공항건설리포트》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실삼아 지난 4월 1일 《동남권신공항》 공약 파기를 선언하였다.

결국 《동남권신공항건설》이라는것이 선거표를 끊어모으기 위해 고안해낸 빈껍데기 공약이라는것이 드러나버렸다.

하기에 집권자의 거짓공약에 속히온 영남지역인민들은 《공약파기는 《대통령》 때 표를 얻기 위해

민심을 우롱한 기만 《공약》 들

원 공약을 내놓은것을 립증한것》이라며 인민들을 속인 현 《정부》와 《한나라수정안》을 심판해야 한다고 단죄하고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대통령은 신공항공약을 자립의 선거에 한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또 한번 활용한 후 내던져버렸다.》, 《단물

저라 부르짖던 현 집권세력이 《실용정부》 발족후에는 태도를 돌변하여 《세종시수정안》이란것을 들고나와 우격다짐으로 이를 내밀려고 하였다.

《선거공약》을 현실처럼 차던지는 이 비열한 처사가 각계의 분노를 사고 향의 규탄에 부딪치자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너스레를 떨었으나 대기업들과 깊은 밀착관계를 가진 현 집권세력이 《세종시수정안》을 교묘하게 다시 추진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반값등록금공약》 역시 오늘에 와서 가짜 공약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선거》 때 반값등록금으로 서민들도 공부할수 있게 하겠다고 한 현 집권자는 지금 《반값등록금을 거론조차 한적이 없다.》며 발뺌하고있다. 날로 높아가는 등록금과 실업난으로 하여 해마다 200~300명에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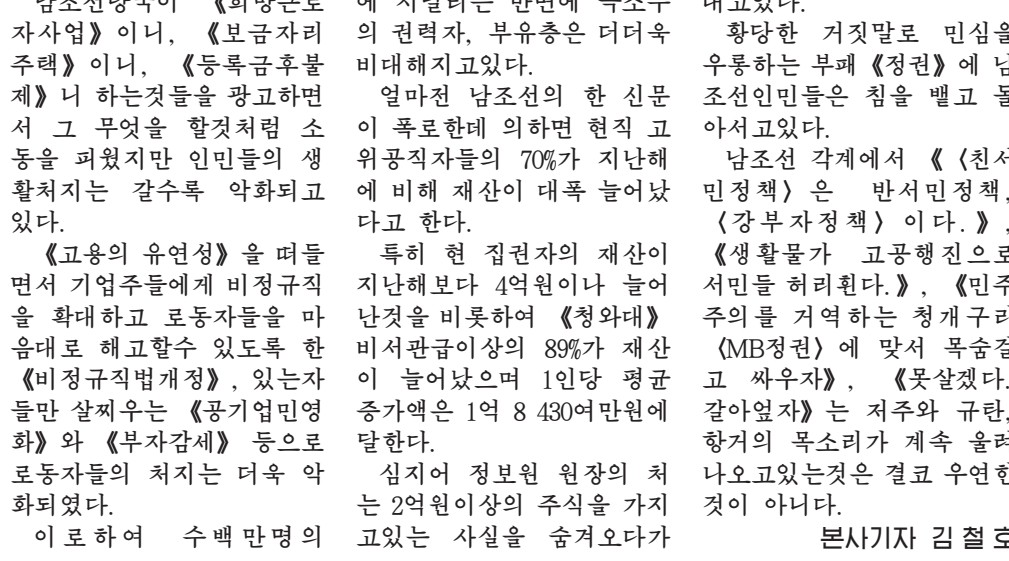
하는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절과 비관, 우울증에 빠져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이뿐이 아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권》을 충청도에 주겠다고 하면서 이 지방 인민들의 지지표를 끊어모았던 현 집권자는 지난 1일 어느 한 방송에 출연하여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권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선거공약》을 뒤집어엎었다. 그러면서 《충청도에서 내가 표를 얻으려고 좀 관심이 많았다.》며 뻔뻔스러운 언사까지 늘어놓았다.

현실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떠들어온 《공약》이란것이 민심을 기만하여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내놓았던 속어 없는 거짓타령이었다는것을 여지없이 까밝혀주고있다.

정치인의 초보적인 신의, 도덕도 없고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이 안중에도 없는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이 침을 뱉고 돌아서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임금인상과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대제해속에서 도꿈틀거리는 령토평창야망

지난 3월말 일본당국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자기들의 땅으로 명기한 역사교과서에 대한 결정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역사교과서들에는 독도 《령유권》 문제만이 아니라 지난해 남조선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폐기하기로 합의한 《임나일본부》설 등이 또다시 서술되었고 옹당 지적되어야 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외국인 역사교과서의 중수도 이전에 10종이던것이 이번에 12종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라츠 독도 《령유권》을 주장하는 그 무슨 외교청서라는것도 발표하였다.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역사외곡책들은 지금 우리 겨레

의 한결같은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일본은 대규모의 지진해일과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누출사고로 하여 최악의 위기에 처하여있다. 이미 수만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지역의 전기, 물, 식품공급이 차단되어 도처에서 아우성이 터지고있다. 지진해일로 파탄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누출은 계속되어 일본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를 방사능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당국들도 《건국이래 최대의 재난》으로 묘사하며 갈팡질팡하고있다.

일본으로서서는 이 재난을 수습하자고 해도 다른데 신경을 쓸 경향이 없고 눈코 뜰새가 없을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독도가 제 땅이라고 명기한 사회력사교과서들을 검정표현것은 일본의 독도강탈야욕과 제침야망이 얼마나 뿌리깊고 강한것인가를 다시금 여실히 보여준것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지금 일본이 당한 재난을 두고 세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동정과 지원의 손길을 뻗치고있다. 일본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아직 풀지 못한 우리 겨레이지만 이번이 이웃나라에서 뜻밖의 재난이 발생하자 집신으로 동정과 위문을 표시하면서 성의 있는 지원 노력도 하고있다.

하다면 일본으로서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국제사회의 이러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자극할수 있는 도발적인 행

동들을 자제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동정과 지원의 그늘 밑에서 뻔뻔스럽게 령토평창야욕을 다시 드러내며 일본은 도덕적저열성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는가.

력사는 외곡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독도는 령토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부정할수 없는 조진민족의 신성한 령토이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가 제 땅이라고 우겨도 공인된 우리 민족의 땅이 일본땅으로 인정될수 없다. 오히려 령토평창야망은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만을 더욱 증대시킬것이다.

미국이 만든 분쟁의 씨앗

얼마전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넷신문에는 1974년 1월 미중앙정보국이 작성한 《서해한국도서》라는 비밀문서를 해설한 글이 실리었다.

글은 미중앙정보국이 작성한 문서에 《북방한계선》이 확실히 북측령토라고 추정되는 수역을 가로지른다고 적혀있었다고 밝히었다.

이것은 미국이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선이 장차 북과 남사이

에 분쟁의 씨앗으로 될수 있음을 인정하였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도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는 일찌기 이 문제에 관여하였던 미국관리들까지도 그것은 미국의 정전후 남조선이선들을 통해까지 위하여 일방적으로 그려놓은 《어러저지선》이지 그자체가 해상군사분계선은 아니라고 실로 한다 있다.

에 제멋대로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을 그려놓았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정전협정후 반세기 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북방한계선》의 《고수》를 요란스레 떠들면서 서해해상일대에서 군사적긴장을 부단히 격화시키고있다.

이로하여 서해수역은 언제 군사적충돌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최대의 화약고로 되었다. 지난 시기 조선서해에서 북남사이의 무장충돌이 빈번히 일어난것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더우기 지난해 11월 남조선호전세력은 연평도에서 공화국의 령해에 대고 수천발의 포탄을 쏘아대는 도발소동을 감행함으로써 엄청난

군사적충돌을 일으키고 전쟁의 불기름을 질게 몰아왔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때 남조선호전세력은 불법방법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사수》하겠다고 고아대면서 연평도를 비롯 한 서해 5개 섬일대에 수많은 최신정전장비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무장충돌을 야기시키기 위한 북침전쟁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다.

문제는 비단 여기에만 그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

서 많은 녀성들이 항시적으로 성폭력공포중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에서 하루평균 성범죄건수는 56건으로서 2008년의 49건에 비해 7건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2월 부산에

모를 죽이는 폐륜매력의 야만행위가 꺼리낌없이 벌어지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가 성행하여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집수리공이나 배달원로서 가장하고 대낮에 집에 뛰어들거나 밤에 택시운전사로 가장하고 녀성을 랍치하여 저지르는 성범죄가 늘어나면

문화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개탄하고있다.

학교 병든 남조선사회에서는 청소년범죄도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10대의 청소년들이 주유소에서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가 하면 돈을 위해 편

강도, 절도, 폭력 등 각종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수는 7800명으로 2008년보다 18% 늘어났다.

《외국인 100만명시대》에 대응한다고 떠들면서 당국이 만들어낸 제도가 오히려 외국인범죄를 조장하고있다.

하기에 지난해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사회적불안감을 느끼고있는 남조선주민들이 90%에 달한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살인, 강도, 폭력, 강간 등 각종 범죄사건들은 썩고 병든 사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있다.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만 잘살면 된다.》는 극도의 개인기주의와 황금만능의 사상,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만연시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일본의 역사외곡책들을 반대하여 시위하는 남조선인민들

CNC화는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

최근 공화국의 경제강국건설에서 주목되는것은 우리 식의 최첨단기술에 토대하여 경제의 CNC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짧은 기간에 국가경제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킬수 있는 열쇠로 된다.

공화국은 지금 경제강국건설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어렵고도 방대한 이 과제를 수행하는 지름길은 바로 경제의 CNC화에 있다.

경제의 CNC화는 경제강국건설의 주인을 사람으로 보는 주체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한 과학적인 견해이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 생산자대중이다. 인민들이 강한 정진력에 높은 기술기능수준을 지닐 때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뚫고 경제강국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사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 최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는 보통생산수준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려는 예국의 신념을 지닌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지혜로 우리 식의 CNC기술을 개발하고 이 분야에서 패권을 쥐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비상이 높여주었으며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최첨단과파의 거창한 시대를 열어놓았다. 온 나라에 CNC화가 힘

있게 추진되는 과정에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우리 식, 우리의 힘과 기술이 제일이라는 자존심, 조선은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신념,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고 세계를 더디고 올라가겠다는 리상과 배향,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 걸은것을 한걸음에 뛰어넘으려는 각오를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현실은 CNC화가 천만군민의 정진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고 그 기상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아가게 하는 비약의 원동력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경제의 CNC화는 나라의 경제전반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경제강국을 빠른 시일안에 건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공화국에서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경제의 모든 부분의 균형적발전을 요구한다. 일정한 분야나 부문이 아니라 중앙공업이나 지방공업, 기간공업이나 식료공업 할것없이 세계적인 높은 수준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경제강국이 되고 할수 있다. 이것은 경제를 CNC화하는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CNC화의 대상은 경제의 전반부면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볼때 CNC기술은 공작기계뿐만 아니라 화학기계, 식료기계, 방직기계, 신발기계, 건설기계, 인쇄기계 등 모든 제조업부문들과 군수산업공업의 중요부문에 널리 이용되고있다.

최근년간 공화국에서는 경제의 4대 선형부면들에서 CNC화가 적극 추진되

여 나라의 경제기술적대대가 더욱 든든히 다져지고 합리적인 생산체계가 세워지고있으며 생산이 급속히 장성하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대형 보링반을 CNC설비로 개조하여 종전 때 많은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이였으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1만 t프레스의 CNC화를 실현하여 생산능력을 10배나 높였다. 올해초에는 철도운수분야에서 발전된 몇개 나라에서만 개발한다는 최첨단교류기판차를 생산하여 종래의 전기기판차보다 총견인전력소비량을 50%까지 줄이면서도 견인력은 1.5배나 높였다.

현실은 경제의 모든 부분, 모든 분야에서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다그칠 때 경제강국건설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CNC화를 현대화의 목표로 제시해주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계신다. 우리 식의 CNC기술을 개발, 도입하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수준을 돌파함으로써 공화국을 하루빨리 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자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이다.

멀지 않아 세계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명인 령도밑에 최첨단 CNC기술에 기초하여 거언히 일떠서는 주체의 강성대국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것이다.

유병호



CNC 기술의 패권을 틀어쥐고 최첨단과파의 선봉에서 내달리고 있다. —회천련합기계종합공장에서—

제 16 차 4 월의 명절료리축전 진행

제16차 4월의 명절료리축전이 4일부터 6일까지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성, 중앙기관, 각 도에서 선발된 45개 단원들이 참가한 이번 축전은 지방특산물과 명료리, 대중봉사료리, 외국료리, 로리과학기술 성과자로 전시, 로리사, 접대원들의 기술교연 및 시범출연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각지 봉사자들

이 만든 1,300여점의 특색있는 민족음식과 각종 료리들, 150여건의 과학기술성과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평양시사회교양관리국, 창광봉사관리국, 평양단고기집, 회령시사회교양관리소, 강계탑대포국집에서 출품한 강병이, 녹두, 감자음식과 돼지, 닭, 오리부산물, 단고기료리들을 비롯한 음식들은 독특한 모양과 색깔, 가공방법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찬

사를 받았다. 나라의 혜택속에 유류판을 비롯한 여러 단원에서 봉사되고있는 희귀한 칠갑상어, 자라, 라조, 갑장어, 통정어, 료리 등 명료리들도 전시되었다. 남새조각, 장식과자만들기, 상차림 등 로리사들의 기술교연, 세련된 솜씨와 봉사성을 보여주는 접대원들의 출연이 이채를 띠었으며 로리과학기술성과자로 전시장도 련일 참관자들로

홍성이었다. 폐막식이 6일에 진행되었다. 폐막식에서는 축전심사결과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었다. 축전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애름다운 조국강산

조선동해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의 연해주, 싸할린섬 그리고 일본열도 등으로 둘러싸인 태평양의 연해이다. 평균깊이는 1,668m, 최대깊이는 3,699m이다. 면적은 97만 500km², 폭지해안선의 길이는 1,986.9km이다.

조선동해의 특징은 우리 나라 세 바다가운데서 가장 넓고 깊은것, 만, 반도, 섬이 적고 해안선이 곧은것, 밀물과 썰물의 차가 거의 없는것, 물이 맑고 푸른것(예로부터 《창해》라고 함)이다.

조선동해는 우리 나라 주변바다들 가운데서 수산자원이 제일 다양하고 풍부한 바다이다. 조선동해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물고기만 해도 600여종에 달한다. 봄부터 여름 사이에 난류를 따라 멸치, 고등어, 꽁치, 곱둥이, 정어리, 낚지 등이 밀려들고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명태, 도루메기, 철어, 대구, 이면수, 가재미 등이

깊은 바다에서 연해로 밀려온다. 연해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굴, 새, 대합, 방조개, 문어, 해삼, 갈비, 미역, 다시마, 파래, 우무가사리, 씩씩이, 들복 등 여러가지 해양생물들이 있다. — 조선동해의 이름은 언제 생겨났는가

우리 나라 동쪽바다를 울 처음 동해로 기록한것은 B.C. 37년이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사절요》에는 동해 및 그와 관련된 기록이 총 11개가 있다.

그가운데 동해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했거나 거기에 준한것이 8개이다. 그러므로 동해라는 고유명칭은 문헌적으로 보아도 2천년전부터 써온것으로 된다. — 해당화 붉게 핀 모래밭 명사시리는 강원도 원산시

조선동해

우리 나라 동쪽바다를 울 처음 동해로 기록한것은 B.C. 37년이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사절요》에는 동해 및 그와 관련된 기록이 총 11개가 있다.

그가운데 동해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했거나 거기에 준한것이 8개이다. 그러므로 동해라는 고유명칭은 문헌적으로 보아도 2천년전부터 써온것으로 된다. — 해당화 붉게 핀 모래밭 명사시리는 강원도 원산시

유모야 안해에게 귀여사는 사람

한 감영의 관리가 늘 안해에게 귀여살았다. 어느날 안해에게 몹시 경을 치르고서 나온 그는 (태반질 너런네에게 귀여지내는것이 나쁜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고 자기 같은 사람이 또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관청물에 사령들을 다 모이게 한 관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니희들중에 안해에게 귀여사는 사람이 있으면 왼쪽에서 가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에 서라.》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사령들이 우르르 왼쪽에 가서는 네 유독 한사람만이 오른쪽에 가서는것이였다. 관리는 놀라운 눈길로 그 사령

우리 나라 현활은 긴알품종인 안남미와는 달리 짧은 알품종이다. 농사가 많고 단백질과 지방질, 탄수화물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 많은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현활은 세계적으로 특별히 좋은것으로 알려져있다.

세계적으로 벼를 재배하는 나라는 70여개이지만 우리 나라 현활처럼 영양가가 높고 품질이 좋은것은 드물다. 우리 나라에서 벼농사의

벼농사의 력사가 오랜 우리 나라

벼농사는 매우 오래다.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에 있는 청동기시대의 집자리인 남경유적36호집자리에서는 조, 기장, 수수, 콩과 함께 벼가 나왔으며 고조선시대의 유적들에서도 벼가 나왔다. 이 유적들에서 나온 벼알들은 형태가 매우 고르로운 짧은 알품종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재배되

고있는 조선형벼와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그 시기에 벌써 조선형벼가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품종으로 적응되어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새 식물품종의 형성과 그것이 기후풍토에 적응되는 과정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남경유적을 비롯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들에서 나

아진다. 그러나 한주일간 쌓인 피로를 풀겠다고 휴식일에 잠만 자면 오히려 다음날 더 심한 피로를 느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여야 한다. 봄철에는 공기가 건조하

개봉유적에서 돌로 만든 수습계의 보습날이 나온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갈이농사가 매우 오랜 시기에 시작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는 대체로 신석기시대부터로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벼농사 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 제일 기름진 쌀을 생산하는 나라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녀교수의 증언 (3)

김일순의 연구사업과 교수사업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시험표전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따를 허실하는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어요.》 《은실작물배치에는 연구대상밖의것도 작지 않습니까?》 《여건 화초재배원이 아니에요. 필요한것만 필요해요.》

자들을 무덤속으로 보내야 해!》 김일순이 강의실에 들어갔다. 강의실 한복판에 나서서 두팔을 쳐들고 기업을 토하던 연구생이 굳어진다. 《누구예요, 어디서 왔는가?》 김일순은 조용히 물으며 다가갔다. 《교수선생님, 전... 연구생입니다.》 《내 보기엔 여기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은 여기서 하는게 아닙니다. 신성한 과학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하는거예요. 나가요!》 서서히 높아진 김일순의 마디마디가 출입문을 가리킨 손끝에서 력점을 찍으며

끝났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다. 강의실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돼버렸다. 시국을 통한 연구생은 김일순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선생님, 민족이라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고있는 변이현상을 외면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련을 행사한 김일순이지만 마음은 자못 무거웠다. 착잡한 심중속에서는 누가 옳은가를 묻는다. 이것 또한 오랜 교수생활과정에 처음 겪게 되는 이상야릇한 질문이었다. 자기로서 명백한 대답을 할수 없는것이 놀라다 하여도 그와 같은 심리적모순이 리성을 압박했다.

되어있는 콩, 보리, 팥을 비롯하여 잡곡을 음식에 섞어 먹는것이 좋다. 또한 신선한 산나물이나 들나물을 많이 먹어 비타민 C와 무기질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특히 아침식사를 건느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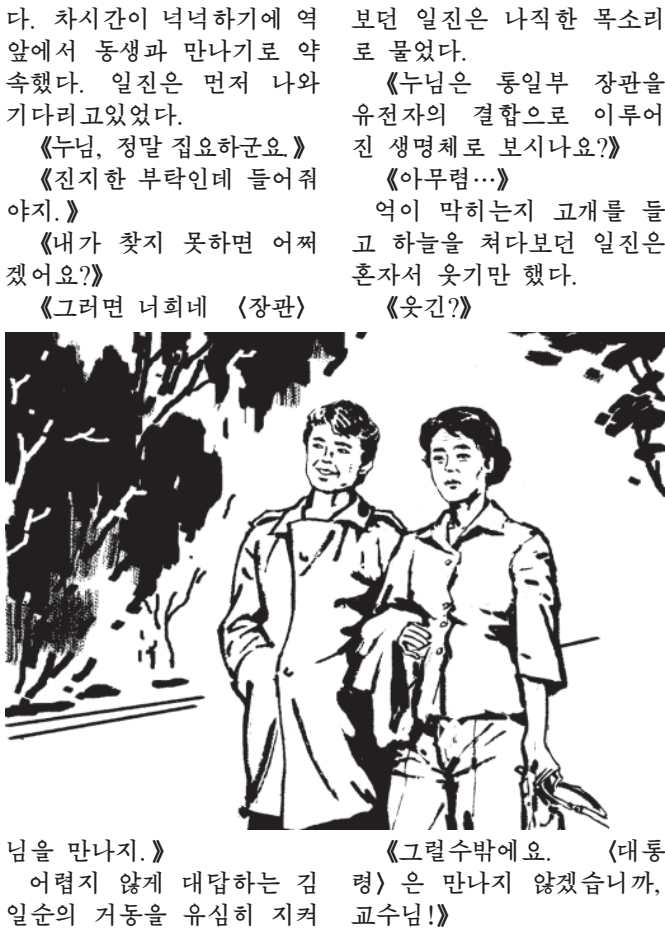
건강상식

아침식사를 건느면 점심을 많이 먹게 되어 식곤증까지 겹치게 된다. 아침은 생선, 두부를 비롯한 콩류같은것으로 간단하게 먹고 점심에는 동물성지방음식을 적당히 먹으며 저녁에는 잡곡밥, 봄나물을 비롯한 산모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춘곤증은 비타민B가 부족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비타민B가 많이 포함

기때문에 미세한 먼지가 대기에 많이 떠다니고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므로 호흡기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을 자주 씻는것을 비롯하여 개체위생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며 로인이거나 만성질환환자들은 미리 독감예방주사를 맞는것이 좋다. 아침과 저녁에는 체온을

보호하고 땀을 잘 뺏아들이는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나 어지러운 장소에서 늘고 땀을 흘린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을 깨끗이 씻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봄철에는 공기가 건조하

때 뜨거운 물보다는 피부의 온도보다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이 좋다. 특히 피부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비누사용에 신중해야 하며 목욕을 하거나 한증욕 할 때 수건으로 너무 세게 때를 벗겨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털수육 피부부를 적게 노출시켜야 한다. 봄철에는 겨울철보다 자외선이 더 강해지기때문에 피부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자외선은 화상을 입히는것과 함께 기미, 주근깨, 피부 주름이 생기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피부노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밖에 나갈 때에는 모자 혹은 양산같은것을 쓰거나 자외선차단약을 충분히 발라서 자외선의 피해를 방지하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김영실



남을 만나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만나지 않겠습니까, 일순의 거동을 유심히 지켜